
‘탐정’과 ‘탐정 소설 취미’의 탄생

김지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탐정 소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사립 탐정이다. 셜록 홈스, 엘르퀼 푸아로, 미스 마플, 제시카 플레처, 소년 탐정 김전일 등등 우리는 소설, 영화, 만화, 드라마에서 명탐정으로 이름난 인물들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한국인은 떠오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감각으론 한국에서 탐정 소설은 상대적으로 미발달된 장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대의 예상과 달리 식민지 시대 대중문화 시장에서 탐정 소설은 적지 않은 인기를 끌었다. 1920년대에 이미 아르센 뤼팽, 셜록 홈스 이야기가 앞다투어 번역되었고, 염상섭, 채만식 등 이름난 작가들이 탐정 소설을 번역, 창작했으며, 김내성과 같은 전문 탐정 소설 작가가 활발히 활동했다. 조선 시대까지도 ‘정탐/탐정’이란 말이 남의 뒤를 캐는 일, 정치적 스파이 활동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쓰였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탐정 소설의 유행은 자못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한국에서 ‘탐정’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전문 수사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을까. 또 남의 뒤를 엿탐하는 일을 가리켰던 ‘정탐’ 행위가 대중적 취미 문화로 성장한 것은 어떤 연유에

서였을까. ‘정탐’, ‘탐정’이라는 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2

‘점치다, 묻다, 몰래 살피고 헤아리다’라는 의미의 한자 ‘偵(정)’과 ‘찾다, 구하다’라는 의미의 한자 ‘探(탐)’을 결합한 어휘 ‘정탐’, ‘탐정’은 ‘몰래 살피다, 비밀스럽게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의 기록들에서 ‘정탐’, ‘탐정’은 “왜선의 정향과 왜인의 동향을 정탐하다(《일성록》, 정조 즉위년 10월).”, “적군이 최영의 명성을 정탐해 알아내고 최영의 군대만 부수면 서울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조선왕조실록》, 태조 총서).”라는 식으로 정치·군사적 활동과 관련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탐정’보다는 ‘정탐’이 압도적으로 자주 쓰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발간된 어휘 사전 《한불자전》(1880), 《한영자전》(1897)에는 ‘탐정’도, ‘정탐’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독립신문》, 개화기 잡지, 신소설 등에서도 ‘정탐/탐정’보다는 ‘탐지’, ‘탐문’이 많이 쓰였다. 대중 미디어나 개인사적 저작보다 실록과 관청의 역사 기록 및 관직 수행의 기록에서 그 용례가 자주 발견된다는 것은 ‘정탐’과 ‘탐정’이 관청의 권위와 자주 연계되어 쓰였음을 의미한다.

‘정탐/탐정’이라는 말이 공권력과 연계되고 정치·군사적 성격으로 쓰이는 일은 1920년대까지도 계속된다. ‘열국 탐정술의 발달(1921. 7. 22.)’, ‘정치 탐정 수감(1926. 1. 11.)’, ‘중국 정탐국 비밀문서 제시(1928. 2. 4.)’, ‘모국인과 연락한 군사 정탐을 체포(1928. 3. 22.)’, ‘밀탐정을 살해한 정의부원의 공판(1928. 11. 10.)’, ‘나남시에서 군사 탐정 피착(1929. 10. 21.)’ 등등의 《조선일보》 머리기사에서 보듯 ‘정탐’, ‘탐정’이라는 말은 스파이, 밀사, 군대 정찰병 등을 지칭하는 데 주로 쓰였고, 국가적·

군사적 기밀을 캐는 행위와 행위자를 지칭하는 데 쓰였던 만큼 윤리적
으로 좋은 어감을 주는 말이 아니었다.

이처럼 정치, 군사, 치안 행정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보도하는 데
사용되던 ‘탐정/정탐’이라는 용어가 개인 생활의 영역에도 나타나기 시
작한 것은 1920년대 중·후반이다.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
부터 신문에 사설탐정 기관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기괴한 사설 정
탐 일반 피해 대대(多大), 부호 자제와 과부 위협, 조선의 처음인 정탐
범죄(《조선일보》, 1929. 3. 13.)’ 등의 머리기사에서와 같이 사적인 ‘정
탐/탐정’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실리게 되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사적인 문제나 일반 대중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가 머리기사에서 ‘탐정’이라는 어휘를 채택한 경우는 대부분
‘탐정 소설 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탐정 소설 가튼 고
녀(雇女) 교살 사건(《동아일보》, 1931. 8. 4.)’, ‘은행가 애녀의 참살 시
의 두족! (중략) 탐정 소설 같은 범죄 사실(《조선일보》, 1929. 3. 13.)’
등의 기사에서처럼 ‘탐정 소설 같은’이라는 말로 벌어진 일의 선정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머리기사는 192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1930년대 신
문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다. 이는 이 시기 처음 등장했던 ‘탐정 소설’
이 개인 생활을 ‘탐정/정탐’ 행위와 접촉하여 사유하는 사고를 일반화
시키고, ‘탐정/정탐’이라는 어휘를 교묘하고 충격적인 범죄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호로 환치시키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실제로 ‘탐정 소설’이라는 말은 1918년 《태서문예신보》에 ‘탐정 괴담’
이라는 표제로 코넨 도일의 소설 〈충복〉이 번역된 이래, 정탐 소설 《박
취우산》(1920), 기괴 탐정 소설 《813》(1921), 탐정 소설 《귀신탐》(1924
~1925), 탐정 소설 《최후의 승리》(1928) 등이 신문에 연재되면서 점점
일반화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탐정’이라는 어휘가 ‘탐정적 흥미’, ‘탐
정 취미’와 같이 재미를 찾는 대중의 기호를 이끌어 내는 표현이 되는
것은 이처럼 탐정 소설이 유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탐정 소설’은

‘탐정/정탐’을 일상적인 흥미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그 자체가 끊임없는 자극과 재미를 요구하는 대중에게 새로운 ‘취미’를 제공하는 취미 기호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3

탐정 소설이라는 장르가 등장하면서 쓰이게 된 ‘탐정’이라는 말은 이전의 ‘정탐/탐정’과 확실히 달랐다. 서구 탐정 소설의 도입 이전에도 《쌍옥적》, 《도리원》, 《과도상선》 등 ‘정탐 소설’로 명명되었던 신소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소설들에서 ‘정탐’이란 명칭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경찰이 탐사 행위를 위해 고용하는 하수인’이었으며, 이들의 정탐 행위란 엿듣기, 뒤쫓기, 육감으로 짐작하기에 지나지 않았다. 탐정 소설의 ‘탐정’이 정탐 소설의 ‘정탐’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신체와 감각에 의존하는 ‘정탐’ 행위와 뚜렷이 구분되는 과학적 조사와 논리적 추리 때문이었다. ‘탐정’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장르명에 앞세웠던 〈충북〉의 탐정 듀뢰장은 전문 사설 수사관으로 한국 소설사에서 전문적인 과학 수사의 탄생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듀뢰장이 해결하는 사건은 살인이나 치안 사건과 같이 공권력이 동원되는 사건이 아니라 학교의 시험지 도난이라는 사적인 사건이다. 사건의 성격이 사소한 만큼 이 소설은 모험적 탐사보다 주인공 탐정의 과학적 조사 방식과 논리적 추리에 초점을 맞춘다. 듀뢰장 탐정은 도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검증을 통해 범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용의자인 세 학생의 용모, 성격, 태도를 조사한 후 양자의 연관 관계를 이론적으로 추론함으로써 범인을 찾아낸다. 행동보다는 추론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해석하는 듀뢰장의 조사 방식은 육감과 우연, 모험적 추적 행위로 구성되는 ‘정탐 소설’의 조사 방식과 뚜렷이 구분된다. 정탐 소설의 조사 방식이 신체적, 감각적

인 것이었다면, <충북>의 조사 방식은 다분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듀뢰장과 같은 근대적 '명탐정'의 등장은 이처럼 '탐정'이 내포하는 수사 방식의 획기적 전환 속에서 이루어졌다. <충북>의 장르 표제로 제시된 '탐정'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한 조사 행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와 같은 조사 행위의 주체인 근대적 '탐정'의 등장을 알리는 어휘였던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근대적 수사 주체 '탐정'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910년대의 《지환당》, 《도리원》에서부터 1920~1930년대의 《박쥐우산》(1920), <검은 그림자>(1920), <혈가사>(1926), 《겉쇠》(1929~1930), <사형수>(1931), <배암 먹는 살인마>(1934), 《수평선을 넘어서》(1934) 등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시대 탐정(정탐) 소설의 수사 주체는 경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형사, 순사, 서장, 순사보들이다. 특히 1920년대까지의 작품들은 대체로 이들 경무국 소속 경찰들을 직접 '탐정/정탐'으로 표기하면서 서사를 진행한다. 《염마》, <질투하는 악마> 등 개인 탐정을 내세운 소수의 소설들에서도 주인공 탐정이 경찰과 대립하기보다는 조력하는 입장에서 있다. 본질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조사 행위의 주체인 '탐정'은 설록 홈스나 엘르퀼 푸아로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탐사 주체가 아니었다. 탐정 행위의 본원적인 자격은 일차적으로 '전문 수사자'로서 식민지 경찰에 주어져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탐정 소설 취미'가 대중적 유행어로 등장한 식민지 중반에도 행위나 행위자로서의 '탐정'의 의미가 '첩보, 치안'의 의미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수사 행위와 일제 공권력의 관련성은 식민지 시대 '탐정'이라는 어휘 안에 내재한 근본적 딜레마의 하나였다.

탐정과 공권력의 밀착 관계라는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탐정 소설이 식민지 한국에서 쉽게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 시대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계몽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정밀한 생각과 날카로운 관찰로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미세한 사실로부터 진실을 파악해 내는 과학적 태도는 근대 계몽기부터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던 계몽 운동의 한 지표였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동시에 심리적’¹⁾인 장르로서 탐정 소설은 ‘교수, 정치가, 과학자, 문인 등등 타 종류의 통속 소설을 읽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매력을 느끼’²⁾는 고급 장르였다. ‘탐정 소설을 쓰려면 심리학, 법의학, 범죄학 등은 물론 철학, 과학, 사학, 천문학, 정치,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어느 정도의 수련이 있어야’³⁾ 한다는 생각은 지식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적인 기제였다. 풍부한 과학적 지식의 습득과 이 지식의 합리적인 실천이라는 계몽 이념의 토대 위에서 탐정 소설 취미는 저급 통속 독물과 구별되는 고급한 근대 취향을 뚜렷이 표방하고 있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의 과학 지식수준은 이 같은 탐정 소설 취미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조선의 과학 지식수준은 그리 높지 못했다.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 의해 보통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매우 기초적인 과학 지식만 교육했고, 경성제국대학, 보성전문학교 등 대학과 전문학교에서도 자연 과학 분야의 전공 학부는 드물었다.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들을 논리적, 실증적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1) 김영석(1931), 《포오와 탐정 문학》, 조성면 편(1997), 《한국 근대 대중 소설 비평론》, 태학사, 120.

2) 안희남, 탐정 소설론, 《조선일보》 1937년 7월 13일 자.

3) 안희남, 탐정 소설론, 《조선일보》 1937년 7월 14일 자.

에서 과학적 지식들은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로만 전달되었고, 그런 만큼 과학의 이름에 값히는 논리적 구조를 통해 이해되기보다는 진기한 이야기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다. 빛, 열, 화학 원소, 전기, 에너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것들의 상호 작용과 역학 관계를 다루는 과학이란 그 과정이 증명되고 실험되고 이해되기 이전에는 차라리 미술에 가까웠다.

이처럼 현실 과학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최첨단 과학 수사를 추구할 때, 탐정 소설은 합리적인 추리 과정의 전개에 성공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당시 창작 탐정 소설 게재에 앞장섰던 인기 잡지 《별건곤》의 작품들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는 대부분 논리적 추론보다는 우연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이발소에서 청년들이 중얼거리는 말을 ‘엿듣고’ 범인을 알아내게 된다거나(《순아 참살 사건》), 살인 혐의를 받는 누님의 구명 운동에 애쓰던 청년이 명확한 조사나 추리 과정 없이 갑자기 자신이 캐낸 사건의 전말을 편지로 담아 경찰서에 보낸다는 이야기(《질투하는 악마》)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살인 사건이 있고 사건의 해결이 있지만, 그 과정에 주어져야 할 추리는 생략되거나 비약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 시기 탐정 소설에서 과학성은 논리적 수사나 추리보다는 사건(혹은 해결)의 진기성을 도드라지게 부각시키는 이야기 재료의 차원에서 동원되었다. 주입 후 2시간 후에야 독성이 발효되는 독물 ‘크라노테’(《질투하는 악마》), 사체의 동공에서 마지막 본 자의 인상을 찍어 내는 사진술(《K박사의 명안》), 의수·의족 제조 기술(《기차에서 만난 사람》), 지문 감식법(《누가 죽였느냐!》, 《염마》), 사체 검시법(《질투하는 악마》), 기차의 운행 시간과 커브를 틀어 화물을 떨어뜨리는 지점에 대한 사전 검증(《약혼녀의 악마성》), 이중인격(《미모와 날조》), 변장술(《염마》) 등 식민지 시기 창작 추리 소설에 동원된 의학, 과학 기술은 여간 화려한 게 아니다. 창작에 동원된 과학 기술 가운데는 인간

의 동공에 비친 영상을 사진으로 현상하는 사진술이나, 지문이 찍힌 순서 감별, 짚 인형 실험을 통한 시체 처리 방법 추적 등 합리성을 위반하는 요소들도 적지 않았으나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화려한 기술들이 사건의 재미를 증폭시키는 소재로서, 합리적 추리의 단서가 되거나 아니거나 간에, 이야기의 묘미를 살리는 요소로 쓰인다는 사실이었다. 때문에 진기한 사건의 전모와 교묘한 속임수들은 논리적 추리를 통해 형상적으로 그려지지 못하고 인물의 생각이나 길고 긴 고백을 통해 설명적으로 전달되곤 했다.

추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부각되었던 것은 처참하고 끔찍한 살인의 결과, 희생자의 무구한 육체, 범인의 잔인무도하고 악마적인 성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들이었다. <질투하는 악마>(최유범, 1933), <약혼녀의 악마성>(최유범, 1934), <배암 먹는 살인마>(양유신, 1934), <염마>(채만식, 1934), <악마의 루>(세창서관, 1936) 등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태동기 한국 탐정 소설들은 범인의 잔인하고 악마적인 성격을 표제로 앞세웠다. 살인자의 파괴적이고 마성적 성격은 냉혹하고 방약무인한 태도(<염마>, <마인>), 태연자약한 살인 행위(<K박사의 명안>, <염마>), 이중성격과 같은 광기 어린 사고방식(<미모와 날조>, <염마>, <광상 시인>, <백사도>), 교묘한 범행 계획(<연애와 복수>, <질투하는 악마>, <약혼녀의 악마성>) 등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의 시체는 잔혹할 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그리하여 식민지 시기 한국 탐정 소설은 과학 수사와 논리적 추리라는 ‘탐정’의 새로운 의미를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잔혹하고 끔찍한 대상이나 광적이고 악마적인 심리, 섬뜩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저변으로 하는 ‘괴기’적 성격으로 치달는다. 과학적 추리와 비과학적 괴기의 결합은 식민지 시기 한국 탐정 소설이 다른 어떤 장르와도 또렷이 구분되는 변별적인 특징이다. 과학적 ‘탐정’과 충분히 과학적일 수 없었던 ‘탐

정 소설 취미'의 이율배반적 접속은 한국 탐정 소설의 특징이자, '탐정'이라는 말의 역사가 함축하고 있는 독특한 한국적 기억의 하나일 것이다.

참고 문헌

김지영(2011), '탐정', '기괴' 개념을 통해 본 탐정 소설의 형성 과정, 《대중 서사 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 이론과 실천.

